

|| 성도의 교제 || 복음을 전하는 교회 성장하는 그리스도인

○ 환영

오늘 새로 오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교제를 나누시고, 신앙 생활을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 알림

1. 오늘 실만한물가교회 주일 예배에 오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넘치는 주일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2. 2025 년에 온 성도님들이 함께 잃은 양 찾기 운동에 참여합니다.

실천사항 1: 잃은 양을 위해 매일 기도합니다.

실천사항 2: 잃은 양을 향해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소개합니다.

3. 사순절(3/5-4/19): 사순절의 기간 동안 더욱 말씀을 가까이 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권면해 드립니다.

4. 온라인 새벽 예배가 진행 중입니다. 매주 수, 목, 금 오전 6 시 YouTube (신명기)

5. 토요 전도를 위해서 함께 기도 부탁드립니다.

6. 마태복음 5 장 14 절 (2025 년 3 월 성경 암송 구절)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7. 실만한 물가 교회 헌금 안내입니다.

Cheque Pay to: The Refreshing Church

E-Transfer: rwgchurch@outlook.com

3/9 일 헌금 통계: \$410.00

○ 실만한물가교회 연락처

E-mail: rwgchurch@outlook.com

Homepage: rwgchurch.ca

Tel.: 647-989-2546

Address: 2630 Inlake Court, Mississauga, ON L5N 2A7

실만한 물가 교회 QR Code Scan

홈페이지



YouTube 채널



목요성경공부



카카오채널



대한예수교장로회
실만한물가교회
The Refreshing Watered Garden Church

주일 예배	오후 1:30	인도: 김윤규 목사
목도 Choral Prelude		다함께
예배의 부름 Call to Worship		인도자
기원 Invocation		인도자
*찬송 Hymn	24 장	다함께
*신앙고백 The Apostles' Creed		다함께
*교독문 Responsive Reading	125. 사순절 (2)	다함께
찬양과 경배 Praise and Worship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 / 621 장	다함께
교회 소식 Announcements		인도자
봉헌 및 기도 Offering & Prayer	215 장 (통 354)	다함께
성경 봉독 Scripture Reading	요엘(Joel) 3:16 (p. 1273)	인도자
설 교 Sermon		김윤규 목사
	피난처 되신 하나님 The Lord who is our refuge	
*찬 송 Hymn	620 장	다함께
*축 도 Benediction		김윤규 목사

*는 일어섭니다

초대 교회의 신앙으로 세워가는 교회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롬 5:1)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 말씀 노트 || 피난처 되신 하나님

(을 3:1) 보라 그 날 곧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 가운데에서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할 그 때에

(을 3:2) 내가 만국을 모아 데리고 여호사밧 골짜기에 내려가서 내 백성 곧 내 기업인 이스라엘을 위하여 거기에서 그들을 심문하리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을 나라들 가운데에 흩어 버리고 나의 땅을 나누었음이며

(을 3:11) ...여호와여 주의 용사들로 그리로 내려오게 하옵소서(을 3:12) 민족들은 일어나서 여호사밧 골짜기로 올라올지어다 내가 거기에 앉아서 사면의 민족들을 다 심판하리로다

(을 3:13) 너희는 낫을 쓰라 곡식이 익었도다 와서 밟을지어다 포도주 틀이 가득히 차고 포도주 독이 넘치니 그들의 악이 큼이로다

(마 13:30) 돌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곳간에 놓으라 하리라

(을 3:16)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부르짖고 예루살렘에서 목소리를 내시리니 하늘과 땅이 진동하리로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의 피난처, 이스라엘 자손의 산성이 되시리로다

(시 73:28)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을 3:18) 그 날에 산들이 단 포도주를 떨어뜨릴 것이며 작은 산들이 젖을 흘릴 것이며 유다 모든 시내가 물을 흘릴 것이며 여호와와 성전에서 샘이 흘러 나와서 싯딤 골짜기에 대리라 (을 3:19) 그러나 애굽은 황무지가 되겠고 에돔은 황무한 들이 되리니 이는 그들이 유다 자손에게 포악을 행하여 무죄한 피를 그 땅에서 흘렸음이니라 (을 3:20) 유다는 영원히 있겠고 예루살렘은 대대로 있으리라

(을 3:21) 내가 전에는 그들의 피흘림 당한 것을 갚아 주지 아니하였거니와 이제는 갚아 주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에 거하심이니라

|| 목회와 삶 || 우리도 광야를 선택하고 있지 않습니까?

순례자의 길을 걸어가는 믿음의 길도 우회하지 않고 곧게 걸어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 속에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세상을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곧은 길로 인도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끝이 없을 것 같은 우회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구약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호렙산(시내산)을 출발하여서 불뱀과 전갈이 가득하고 물이 없는 건조한 땅 광야를 열 하룻길을 걸어서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하였습니다(신 1:2, 19). 열 하룻길의 광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힘든 과정이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0 년의 광야 생활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우회의 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즉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불행의 시작 정탐꾼의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40 년의 광야 생활을 하게 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가나안 땅에 정탐꾼을 보내자고 제안한 형식적인 이유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이전에 그 땅의 길을 파악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허락해 주신다는 약속(신 1:21)에 대한 불신이 있었기에 하나님보다 앞서 가서 자신들이 그 땅을 정복할 수 있는지 파악하기를 원했습니다. 그 결과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제외한 나머지 열명의 정탐꾼들은 가나안 땅 정복을 부정적으로 이야기했고(민 13:31-33),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원망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미워하시므로 아모리 사람들에 의해 자신들을 전멸시키시려고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셨다고 원망하였습니다(신 1:27).

원망의 결과가 얼마나 참혹합니까? 하나님께서는 12 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정탐한 40 일을 기준으로 하루를 일년으로 계산하여서 40 년 동안 불뱀과 전갈이 가득한 광야에서 생활하게 하셨습니다(민 14:34).

인생의 선택의 기로에서 우회의 길로 돌아가지 않고 곧은 길로 가고 싶습니까? 그 방법은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신뢰입니다.

(신 8:2)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사십 년 동안에 네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